중국, 농축질산 수익하락 고전!

생산능력 확장으로 공급과잉 … 생산공정 단순화가 큰 위안

중국 농축질산 시장은 최근 계속된 생산능력 확장으로 수익성 높은 상품에서 저수익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마진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수년 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질산 생산공정이 몰라보게 단순해져 점점 더 많은 질산 생산기업들이 농축질산을 생존을 위한 탈출구로 삼고 있다.

최근 농축질산 분야에 관한 조사에서 질산 생산능력을 보유한 질산암모늄 생산기업들이 점차 질산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르고 있으며 언제든지 질산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농축질산 내수가격은 최근 몇년간 상승추세를 보여 1999년 톤당 평균 1254元에서 2002년에는 1333元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총 수익률은 계속 하락해 1999년 40.5%에서 2002년에는 34.4%로 떨어졌다.

중국의 농축질산 시장은 1990년대 초·중반기에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소비자들은 농축질산 제품에 익숙해졌고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공정 디자인도 고정돼 있었다. 또 생산량과 판로도 안정적이었고 생산비용도 극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생산기업의 수익은 급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angdong이나 주변 지역의 농축질산 생산기업들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이다. 1992년과 1993년의 생산 증가율은 거의 30%에 달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중국의 농축질산 시장은 라이프사이클의 후반부인 성숙기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신증설이 계속되면서 질산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됐고 수익률 감소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농축질산 생산기업들은 고정고객과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가격인하와 판촉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2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